

월요광장

지역출판, 미로에서 길 찾기



승 광 롱  
시인·계간 문학들 발행인

책 만드는 일로 적잖은 세월을 보냈다. 이십대에 잡지 만드는 일에 발을 들여 10여 년을 보냈고, 이후 독립하여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겪었으니 시쳇말로 ‘꾼’이라 해도 정색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역에서 책 만드는 일, 그러니까 지역 출판의 나아갈 길을 묻는다면 급세 말더듬이가 되고 만다.

광주 남동의 인쇄 골목은 미로다. 누구라도 길을 잃기 십상이다. 출구가 싫어 고개를 내밀면 방금 지나온 자리이거나 다시 길을 가야 하는 갈림길과 맞닥뜨리고 만다.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그 골목에서, 테세우스를 구한 아이리아드네의 실타래를 조조하게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다. 베스트셀러나 스타디셀러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것은 자본이나 유통 등 출판 여건이 지뢰밭인 지역에서 할 얘기가 못 된다. 서울의 내로라하는 출판사에서 눈 돌리지

않는 분야가 있을까. 있다면 그걸 예측 가능한 부수만큼만 짚어 팔 수는 없을지. 예컨대 청소년 문예지 ‘삼피르’ 같은 얘기가.

2004년 여름으로 기억한다. ‘삼피르’는 프랑스어지만 ‘느끼다’라는 뜻으로 어감이 좋아 잡지의 제목으로 삼았다. 편집위원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글을 쓰는 현직 교사와 학생들이 나서 주었다.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두자는 뜻에서였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기획들—문학기행, 작가 인터뷰, 학생문예마당 등으로 찬간호를 꾸렸다.

책을 알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서점 묶을 제외하고는 지역 중·고등학교에 무료로 배포했다. 선생님들에게는 별도로 안내문을 동봉하기도 했다. 동네 서점도 찾았다. 입고 가격을 할인해 주면 몇 권이 나와 받아 놓겠다며 서점 주인들이 마지 못해 손을 내밀었다.

서점에 나간 책들은 출고된 지 2~3개월부터 무더기로 반쯤되었다. 편집위원도 참여한 학생들은 3고이 되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책이 재미있다, 학교 도서관에서 정기 구독을 하고 싶다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을 왜 보내느냐, 다음에 돈 내라는 거냐는 나무람도 있었다.

어떤 식이든 반응은 위안이 된다. 문제는 무반응이 대다수라는 것. 이런 과정이 5~6년 지속되면서 ‘삼피르’는 시들해졌다. 책 이름 그대로 지역 출판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 것이다.

2005년 가을호로 종합문예지 ‘문학들’이 창간됐다. 광주 전남 지역에 이렇다 할 종합 문예지가 없던 차에 ‘문학들’에 대한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었다.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몇 호나 버틸까. 여타의 잡지처럼 ‘사당화’되는 것은 아닐까. 갑론을박의 과정에서 용기를 낸 것은 선배 문인들의 열의 때문이었다.

서울도 객관적으로 신뢰받는 문예지는 몇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중앙언론 지역이든 공신력 있는 잡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중앙을 지향하는 현실에서 지역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느라 안내문을 동봉하기도 했다. 동네 서점도 찾았다. 입고 가격을 할인해 주면 몇 권이 나와 받아 놓겠다며 서점 주인들이 마지 못해 손을 내밀었다.

이러한 원칙 덕분인지 ‘문학들’은 우려보다는 기대에 더 값하는 잡지가 됐다. 한국 문단에서 ‘문학들’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 정도가 됐고, 개진한 담론과 작품 그리고 작가들이 다른 문예지에서 주목받는 위상도 얻게 되었다. 창간 1년 만에 문광부의 우수문예지로 선정되어 해마다 원고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수혜도 누렸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학들’의 창간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우리는 왜 ‘문학들’이 광주에 있어야 하는지, ‘지역성’은 무엇인지, 지역과 지역, 지역

과 중앙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들이 서로 상상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그 의미의 확장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여전히 숙고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재정적 자립을 위해 고투하고 있다.

이 길로 가면 목적지에 닿을 수 있을까. 그건 오직 신만이 알 일이다. 다만 우리는 갈림길만 봐야 한다. 서로의 어깨를 스치는 비좁은 골목에서, 갈림길이 나오면 허름한 모퉁이를 돌면서, 꼬막집이 험하고 고층건물이 들어선 낯선 풍경 앞이거나, 낯익은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리에서, 미로에서, 우리는 모두 길을 잃는다.

길을 모르는 자에게는 길을 더듬다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만이 남게 된다. 그렇게 잃으면서 찾는 길이 진짜 길이라고 믿는다. 어떤 길이든 내게로 온, 나의 그 길은 언제나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길은 미로이다.

보르헤스는 시력을 잃고 나서, “이건 끝이 아니야”라고 했다. “새로운 경험의 시작”이라고 했다.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하나’가 태어난다는 말이다. 아니 다른 ‘복수’가, ‘무리’가 태어난다는 말이다. 하나의 길을 잃는다는 것은 다른 하나의 길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 하나의 길에 사통팔달의 단초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또 다른 미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그렇더라도, 선택이 있어 싫지 않다.

법조칼럼

세련된 포장



정 우 중  
법무법인 형제 변호사

테러방지법 처리라는 문제를 두고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었다. 정국은 선거 준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 표명과 테러방지법이 갖는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몇 명의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빙자해 테러방지법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일을 두고 법조계 내부에서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일단 테러방지법

의 정당성이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은 뒤로 밀쳐놓더라도, 이번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표명은 필자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무가입 단체로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정치적 성향을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 사이 찬반의견이 팽팽한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회장을 비롯한 몇 명의 변호사가 모여 ‘전부 찬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버렸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협회장은 아직까지도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IS를 필두로 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법의 취지나 목적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전부 찬성이라는 독단적 의견을 표명한 테러방지법은 과연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이 전부 찬성할만한 법률인가? 논란이 된 것처럼 이 법에는 명백한 독소

조항이 존재하고, 제도의 악용을 견제할 장치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자정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내걸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192시간25분 필리버스터, 야당 국회의원들의 192시간 25분의 테러방지법 반대 의견을 들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은 오직 4글자 “전부 찬성”뿐이다.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라고 일컬으며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변호사라고 외치던 오만한 자존감은 어디에 두었는지 묻고 싶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국민의 안전이라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동의하면서 그 법을 찬성할 수는 있다. 하지만, 권력분립, 영장주의 등 중요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법률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어떤 이의도 달지 않고 그 법을 전부 찬성했다는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법안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전부 찬성이라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한 것은 변호사단체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변호사 단체의 수장으로서 걸어온 행보의 진정성에도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정도의 민주주의 제도 확립과 인권보장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현 세대는 이를 위해 희생한 많은 사람에게 피와 땀을 빙기치고 있다. 한 번 제도가 만들어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 현실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 버린다. 중세시대 귀족과 평민을 구별하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양반과 노비를 구별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그 제도를 비판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결국,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매우 힘겹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우리가 국민안전, 테러방지라는 이름의 세련된 포장에 현혹되어 거대한 파놉티콘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것은 아닐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기 고

‘헬광주’가 아닌 ‘헤븐광주’를 향해



이 정 석  
광주시 청년인재육성과장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공부하고 제일 똑똑하고 외국어도 능통하고 타이핑도 분당 삼백타는 우습고 평균신장도 크지.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 놓고 있는 거야? 왜 모두 실업자인 거야? 도대체 우리가 잘 팔못한 거지?”

김영하의 소설 ‘퀴즈쇼’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로 IMF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라는 청년실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작년 한해 가장 유행한 신조어 중 하나가 ‘헬조선’(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이었으며 최근 유행하는 ‘이생랑’(이번

인생은 망했다는 의미)은 더욱 절망적으로 들린다. 희망을 잃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 세대’도 이제 옛말이 되었고,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5포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했다는 의미의 ‘N포 세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우리 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작년 3분기 광주지역 고용률은 전국 평균(42.1%)보다 낮은 36.4%였으며, 체감 실업자 수는 약 2만5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실시한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년 중 타지역으로 이주를 고려한 청년이 49.5%에 달했고, 지난 10년간 25만여명의 청년들이 호남권을 떠났다.

이런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광주는 유출인구 대부분이 청년층이란 점이 문제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은 광주의 인구구조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 이들의 이탈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만혼·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지역의 활력을 잃게 한다. 인구유출을 반전시킬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광주시는 2016년 시정 최우선의 과제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뒀다. 최대 현안인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떠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에너지·문화 콘텐츠산업 등 3대 벨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부품산업 등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3대 미래 먹거리 산업 중 가장 핵심 산업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반이 조성되면 전국적으로 생산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4600억원, 고용창출 1만 1500명 유발이 기대되고, 광주지역은 생산 7940억원(전국대비 53%), 부가가치 2360억원(전국대비 51%), 고용창출 7145명(전국대비 62%)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단순히 생산량을 현재의 62만대에서 100만대로 늘리는 사업이 아니다.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전기·수소차 등 미래 친환경차 선도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광주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광주시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에서도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

‘영원한 청년’인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낙망(落望)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하여 청년이 나라의 재산임을 거듭 강조했다. 온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 광주만이라도 청년들에게 ‘헬광주’가 아닌 ‘헤븐광주’의 희망찬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

社 說

‘밑 빠진 독에 물’ 유커 유치할수록 적자라니

‘유커’(중국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힘쓰고 있는 광주·전남 지자체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혈세로 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지만 되레 ‘제 살 깎아 먹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유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해 여행사에 주는 장려금 항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방문객을 실어 오는 전세기와 비정기 노선에 대해서는 대당 최고 500만 원, 크루즈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광객 한 사람마다 광고비, 모객 촉진장려금, 지역상품(섬·골프, 웨딩·부티 등) 특화 장려금이 따른다. 전시·회의를 위한 마이스 관광, 의료·기업·단체관광은 별도로.

하지만 수익을 따져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가깝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광주·전남을 찾는 유커는 체류기간이 짧고 저가 여행 상품이 대다수여서 많이 유치할수록 여행사는 적자

가 쌓인다고 한다. 전남도는 중국 관광객 1인당 3만 원의 인센티브를 여행사에 주고 있다. 그 밖에 술한 장려금이 있지만 유커들의 여행 상품은 2박3일, 3박4일에 최저 10만 원대에서 많아야 40만 원 정도의 열값이어서 타산 맞추기가 어렵다.

면세점을 선호하는 유커 특수를 누린다는 것도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유커가 수도권이나 제주·부산에 몰릴 뿐 금액으로는 예산을 들어 모셔 온다 해도 광주 전남에 떨어뜨리는 돈은 눈 비비고 찾을 정도여서 울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산업의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광주와 전남 같은 외국인 관광객 소외 지역에 관광진흥기금을 더 배분해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치단체 역시 소비를 촉진하는 여행 상품 개발과 면세점 유치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고 많은 전남,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전남도의 교통문화지수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전국 교통문화실태 조사 결과, 전남도는 75.95점으로 전국 16위를 기록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교통사고 발생 건수·사망자 수 등을 포함해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전 형태 등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한 지표다.

최하위권인 교통문화지수가 보여주는 바, 전남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23.72명으로 전국 평균(9.4명)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최근 공개한 ‘2016년도 전남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4년 1만154건에서 2015년 1만516건으로 362건이 늘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최근 5년간(2011~2015) 연평균 4.8%씩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열악한 재정으로 도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가 부족

하기 때문이다. 전남의 도로 연장은 지난 2014년 1만534km에서 2015년 1만 553km로, 1년간 고차 19km 증가하는데 그쳤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목포 1523건, 순천 1479건, 여수 1327건, 광양시 863건, 나주시 636건 등 주로 도시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군에서는 영암이 587건으로 독보적인 1위였다. 전남도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차량 밀집도가 낮아 평균 주행속도가 빠르고, 노약자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시설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무단 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서 주민에 대한 교통안전 질서 교육을 강화해 교통문화지수 후진 지역이라는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겨울잠 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침이 지나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다. 충선도 37일 앞으로 다가왔다. 날씨가 풀려서인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으레 흥보 명함을 든 국회의원 입지자들이 만날 수 있다. 저마다 자신이 선량(選良)으로 적격자라며, 뿔아 달라 물어댄다.

경침을 넘겨 선거철이 다가오니 고려시대 민담 하나가 떠오른다. 고려 중엽 명문장가인 이규보가 입신양명에 뜻을 있었으나 정치권에 나아가지 못했던 시기의 얘기가.

수차례 과거에 떨

어저 이규보는 자신의 시골집 때문에 ‘유아무와 인생지한’(有我無蛙 人生之恨)이라는 글귀를 써 붙여 놓았다. 어느 날 명종이 야행을 나갔다가 이 글귀를 보았다. ‘나는 있으나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대’라는 뜻인데, 아무 생각해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궁금증을 찜지 못한 임금은 집주인에게 하루 묵고 가게 해 달라 청한 뒤 뜻풀이를 들을 수 있었다.

이규보의 설명은 이랬다. 아주 옛날 까마귀가 꾀꼬리에게 노래 시합을 청했다. 꾀꼬리는 황당했지만 사흘 후에 대

결을 하기로 했다. 꾀꼬리는 승리를 확인하면서도 열심히 연습을 했다. 그런데 정작 까마귀는 노래 연습은 하지 않고 개구리만 잡으러 다녔다. 드디어 사흘이 지나 두루미의 심판 아래 대결이 열렸다. 누가 봐도 꾀꼬리의 승리였지만, 웬걸 두루미는 까마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미 ‘개구리 뇌물’을 받은 탓이었다.

과거 시험 합격이 실력자보다는 재력이나 권력을 가진 이들의 아들에게 얼마만큼을 비유한 것이다. 임금은 다음 날 환궁하자마자 수일 후 임시 과거를 열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드디어 열린 과거에 내걸린 시제는 ‘유아무와 인생지한’이었다. 모두가 어리둥절할 때, 이규보는 임금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한 뒤 답안을 써내 장원급제했다는 것이 민담의 내용이다.

여야 공천 심사를 놓고 잡음이 무성하다. 컷오프 탈락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 특혜성 전락공천, 공천 살생부 등 벌써 총선을 둘러싼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양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개구리 뇌물’을 받은 두루미처럼 엉터리 공천으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않길 바란다. /채희중 사회2부장chaeh@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FAX 222-4938)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